

서성배 회장, KBS 2TV '아침뉴스타임' 방송 인터뷰

닭고기 수급동향 등에 대해 설명



본회 서성배 회장은 지난 7월 4일 본회 회의실에서 KBS 2TV '아침뉴스타임'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방송은 '초복을 앞두고 닭고기 전쟁'이란 주제로 지난 7월 9일 방영됐는데, 현재 업계의 상황과 닭고기 수급 등과 관련해 방송되었다.

서성배 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삼복에는 닭고기 판매가 많이 증가하며, 육계사육도 2배 이상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복(伏)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이 닭고기를 더 많이 먹어 국민들은 건강을 챙기고, 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희망에 되기를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배정

닭 계열업체, 총 192억원 배정

지난 6월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에 신청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금액이 192억1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원조건은 연리 3%, 3년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취급기관은 가금관련업체의 경우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이에 본회는 공문을 통해 이번에 자금을 신청한 14개 회원사에 배정액을 통보하고 대출 실행여부를 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한도액이 확정됐지만 사업포기 또는 대출미실행 등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들이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토록 했다.

시 발생 평가 및 방역개선대책 협의회 개최

농림수산식품부 관계관, 주요내용 설명

지난 7월 23일 본회 회의실에서 회원사와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 발생 평가 및 방역개선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김용상 사무관은 시 발생 및 방역상황, 시 유입경로 및 확산원인, 주요 방역조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방역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시 발생에 대한 사전대비 및 초기대응 미흡, 가금류 사



육농가의 방역의식 미흡을 들었으며, 개선방안 및 향후 대책으로는 연중상시방역으로 발생위험을 최소화하고, 초동방역능력강화로 AI 발생시 조기 근절과 AI 검진능력 제고 및 제도개선 등을 꼽았다.

그리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경산)의 살처분·소독조치가 완료된 날(5. 15일)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8. 15일)에 OIE에 AI 청정국 회복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계열업체의 소속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 개정안 의견제출

육용종계도 농장별 종계병아리 구입가격 적용토록

농림수산물부부는 산란계·육용오리 및 종계·

종오리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현행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코자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장려금지급요령'을 개정할 계획으로, 동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본회는 개정(안) 내용중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중 병아리의 상한가격'과 관련해 개정(안)에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육용종계 및 육용·산란·토종닭 실용계) 단, 산란·토종닭 종계는 농장별 종계는 농장별 종계병아리 구입가격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육용·산란·토종닭 실용계) 단, 육용·산란·토종닭 종계는 농장별 종계병아리 구입가격 적용'으로 수정해 줄 것을 지난 7월 11일 농림수산물부에 건의했다.

이는 (사)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산지가격과 실거래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육용종계도 산란종계나 토종닭 종계처럼 예외조항으로 농장별 종계병아리 구입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회, (사)한국전북협회와 MOU 체결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하기로

본회는 지난 7월 18일 목포평화광장에서 열린 '전북 먹는 날 지정 선포를 위한 전북오리 페스티벌'에 참가해 (사)한국전북협회(회장 김유신)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전북어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는 물론 조류인플루엔자(AI)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양계농가까지 돕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 김유신 회장은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전복을 많은 국민들이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고유가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축수산업의 위기를 (사)한국계육협회 등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본회 서성배 회장은 “농축수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사)한국전복협회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닭고기와 전복이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사)한국전복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고유가,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배종하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실장, 김갑섭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 김영록 국회의원, 정종득 목포시장과 관련협회장, 시민 등 천 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전복 먹는 날 지정 선포식’에 이어 전복요리 시식회 및 경진대회, MOU체결, 전

복 특판행사, 전복나눔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복요리 시식회에서는 초복을 하루 앞두고 ‘전복삼계탕’이 많은 시민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최고의 여름 보양식으로 꼽히는 삼계탕과 청정해역에서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전복이 만난 ‘전복삼계탕’은 육지의 맛과 바다의 맛을 한 가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보양식이다.

서성배 회장과 김유신 회장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게 다양한 행사와 요리연구 등을 통해 국민에게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자세한 내용은 ‘현장취재’ 62P 참조).

농협중앙회 항의 방문

사료값 인상 즉각 철회 요구



본회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농민연합 및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사료값 인상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항의 방문을 했다.

이번 기자회견 및 항의 방문은 농협중앙회가 2008년 7월 28일 0시부터 17~20% 농협사료 가격 인상을 단행한데 따른 것으로 사상 유례없는 가격인상폭으로 축산농가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006년 말부터 곡물값 급등으로 사료값이 올라 당시와 비교해 60%가량 사료가 비싸졌다. 그럼에도 이번에 가격을 또 올리는 것은 축산을 그만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사료는 지난 5월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밝혔 당시에도 누적적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를 긴축 경영체제로 감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누적적자를 이유로 최대 20%라는 믿기지 않는 가격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은 고통분담이라는 말을 무색케 할 따름이다”며 농협중앙회는 사료값 이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서성배 회장과 이승호 회장 등 관련단체 회장들은 농협중앙회 남성우 축산경제 대표와 농협사료 이승우 대표이사를 만나 사료값 인상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서성배 회장은 “축산업의 위기상황에서 농민들과 축산업자들은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현재 농협중앙회가 농민들과 축산업자들의 편에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료값 인상을 즉각 철회해야 농협중앙회가 농민들과 축산업자들의 지지를 얻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월간 닭고기’ 편집위원회 위원 위촉

편집분야 확대 및 내용 강화

본회는 ‘월간 닭고기’의 편집분야 확대와 편집 내용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위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김영만 사무관, 축산과학원 가금과 강보석 연구관을 보강, 위촉했다. 위촉기간은 2009년 2월까지다.

제4차 편집위원회 개최

오는 8월 5일 9월호 편집위원회 개최키로



본회는 지난 7월 8일 본회 회의실에서 2008년도 제4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호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편집위원들은 전월호 ‘월간 닭고기’ 평가와 아울러 최근 고유가, 고곡물가 등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계육산업 전반에 걸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 대응책은 무엇인지 8월호 특집내용으로 구성해도 좋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논의되지 못한 9월호 편집내용은 오는 8월 5일 본회 회의실에서 모여 재 논의키로 했다.

2008년도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7월 25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3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008년 AI 발생 평가 및 방역개선대책, 2008년 육계자조금 사업추진, 정부 수매 냉동닭 판매계획 등 7건의 현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경영분과위원회 10개 회원사화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김영만 사무관이 참석했다.

첫 번째 의제인 방역개선대책에 대한 논의결과 일부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업계에서 이미 제출한 의견과 금번의 농림수산식품부의 개선



계획 등을 감안, 추가하여 건의키로 했다.

임의자조금의 시행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또한 생산원가(유류 및 사료) 상승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있었다.

끝으로 정부가 수매한 냉동닭 판매계획에 대해서는 회원사들의 재고 물량이 많고, 판매된다 하더라도 시중도계육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부 수매가 종료된지 1개월 여만에 다시 인수토록 하는 것은 업계의 경영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무더운 여름,

맛있는 닭고기 드시고 힘내세요!

